

The Future _ Real Power VIII

막힌 곳을 돌파하는 생각의 힘 '직관력'

1.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1) 코로나로 인한 변화

구조,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스템(구조)이 있다. 구조의 변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의 변화를 말한다. 구조는 그 시대를 이끌어 갈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다.

(2) 에덴동산

[창세기 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스피릿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에덴을 경작하는 일이다. 에덴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장소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로 복의 근원이 되어 에덴을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며, 충만하게 해야 하는 일을 명 받았다.

(3) 바벨탑 :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이 담긴 그릇이 바벨탑이다. 바벨탑은 그래서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재적인 구조물이다.

(4) 모세 시대 : 키워드는 '출애굽과 광야생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조는 그에 맞게 살아갔다.

(5) 여호수아 시대 : 키워드는 '가나안'이며 광야 마인드가 아니라 전쟁 마인드이다. 이스라엘의 구조도 그에 맞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6) 모세의 성막 : 다윗의 장막 구조는 달랐다. 솔로몬의 성전 구조도 달랐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2. 속사람

(1) 속사람

신앙도 마찬가지로, 예수믿고 구원 받으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다른차원의 생각'이 필요하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다.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절의 말씀처럼, 변화받은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이 변화는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존재적 변화'이다.

[고린도후서 4: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에 보니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대조된다 (영의 사람 vs 육의 사람 / 영의 생각 vs 육의 생각). 변화된 '속사람'은 누구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최고의 형상 '아담'의 모습 그 자체이다.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의 사람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점진적으로 진화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만드셨다. 즉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에덴을 경작하면서 '아담'안에 확인되는 것이다. 없던 능력을 개발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여러고를 만나면, 백부장의 하인이 고쳐진 것처럼, 현실에 적용될 때 확인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 안에 있는 이미 있는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다.

(2)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사야 11:1-2]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2 the Spirit of wisdom and of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of power,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the fear of the LORD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을 통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되었다는 것이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오버랩 되는 이유이다. 이새의 줄기 다윗과, 예수님 위에 임한 여호와와 영은 구체적이다.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위에 여호와와 영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임하였기 때문이다. 영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을 교육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갈망한 것이다.

3. 해석과 분석을 넘어 직관력으로

(1) 코로나 - 변화

코로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변화를 의미한다. 코로나의 특징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구조와 시스템의 변화를 말한다. 그 시스템만 맞다고 여겼던 생각에서 이제는 다른 생각으로의 사고 구조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2) 직관력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각의 구조는 '학습'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학습한 것만 절대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 절대적 생각이 먹히지 않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당황하는 것이다. 그 학습과 기초에 의해 분석과 해석은 발달되었다. 그런데 분석과 해석은 언제나 '사후적'이다. 지금은 '스피드'의 시대이다. 즉 '타이밍'의 싸움이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해석과 분석은 '위기의 때' 맞지 않는다. 해석과 분석이 발달했던 이유는 어떤 위기도 없었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라. 특징은 전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다. 해석하고 분석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다. 해석과 분석을 넘어선 '직관력'이 필요하다. 직관력은 무엇인가?

"직관(直觀, 영어: intuition)은 감성적인 지각처럼 추리, 연상, 판단 등의 사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 어떻게 지식이 취득되는가를 이해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나 의식적 추론을 거치지 않거나 지식 습득 방법을 알지 못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보는 순간 즉시 정답이나 풀이 방법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다." [위키백과]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인간의 직관력은 지능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옳았다. 사실, 그와 다른 위대한 위인들은, 인간의 직감이, 강력한 도구, 특히 우리가 오늘날 살고있는 세계에게 효과적인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조차도, "진정으로 가치있는 인간의 유일한 것은 바로 직감이다"라고 말했다."

"인간의 직감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직감의 산물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본능을 따른다. 또한, 우리는 의사 결정을 위해 두 가지 정보원을 하나로 결합하곤 한다. 바로, 직감과 이성이다."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 인용]

물론 이성에 근거한 해석과 분석은 중요하다. 직감이 중요한 이유는 '결정' 때문이다. '타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이다. 흥해 앞에 선 이스라엘 - 결정해야 한다. / 여리고 - 결정해야 한다. / 골리앗 - 다윗이 결정해야 한다.

모든 것이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력을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나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결정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학습'한다. 학습하는 이유는 하나이다. 현실을 분석하고 분별하는 힘을 갖기 위함이다. 그런데 과연 분석과 분별이 되는가? 흥해, 여리고, 골리앗을 분석해서 움직였는가? 어떻게 내 생각을 믿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분명하다.

'속사람'이다. 변화된 속사람은 다른 존재이다.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만을 가르치셨다. 그들이 학습으로 가졌던 경험을 신뢰하지 않게 했다. 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셨고, 성령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셨다.

속사람을 보는 것이 신앙이다. 속사람이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 연약한 존재,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필요를 아는 존재를 말한다. 그래서 겸손하다. 그래서 듣는다. '레브 쇼메아 (듣는마음)',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다. 다른 차원의 소리를 듣는 속사람을 발견한다. 다른 생각을 하는 속사람을 발견한다. 그 눈으로, 그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직관력'이다. 그래서 직관력은 항상 돌파를 가져온다.

분석과 설명을 넘어 직관력이 필요한 때이다. 직관력은 다른 차원의 길을 만드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일을 낸다. 무엇인가를 이루어 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직관은 자체적인 힘을 갖는다. 직관은 알아보는 힘이다. 본질(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꿰뚫어 보는 힘이다. 다윗처럼, 직관적으로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다. 설명과 개념 정리는 그 직관에 대한 정리일 뿐이다. 자체적인 힘이 없다. 아는 것으로 그친다.

(3) 살롬, 성령과의 친밀함을 통한 믿음

많은 정보나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불안함이 우리를 복잡하게 한다. 생각만 많으면 분석만 한다. 분석은 하는데 실행이 없으면 죽은 지식이 된다. 이성을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신앙으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그래서 살롬이 필요하다. 영의 생각(성령의 9가지 열매)이 중요하다. 성령은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한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한다.(왕 같은 제사장)

골리앗을 넘어 뜨렸던 '다윗의 물맷돌'이 필요하다. 다윗의 물맷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결과물이다. 분석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움직여라. 그 움직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곳에 돌파가 있다. 말씀을 깊이 보고 묵상하라. 생각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하라.